

5·18 성폭력 피해 증언 성수남 선생 별세

80년 5월 참혹한 광주 현장 수습 활동
남편 故김영복씨와 당시 참상 알려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도
피해자 모임 '열매' 결성 국가책임 촉구

1980년 5월 광주의 참혹한 현장에서 부상자를 돌보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의 아픔까지 세상에 증언해온 성수남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31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등에 따르면 성 선생은 전남 늦은 밤 별세했다.

고인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광주 시민을 돕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암울했던 오월의 현장을 지켰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서 "5·18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유지를 받는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전속 사진사였던 남편 고



고(故) 성수남 선생(왼쪽)이 생전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열매 제공〉

(故) 김영복씨와 함께 5·18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부부는 김씨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관공서와 종교단체 등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계엄군의 진압과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렸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 선생과 김씨는 지난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월의 참상을 알리는 데 힘써온 성 선생 역시 계엄군에 의한 국가폭력의 피해를 겪었다.

그는 "구타를 당하고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을 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그 직후에도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다"며 "계속 하나씩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내건 사람처럼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왔던 피해 사실을 세

상에 알린 성 선생은 2024년 다른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열매'를 결성하며 국가 폭력의 책임을 묻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그는 그해 9월 회원들과 국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과 기자회견에도 직접 참석해 국가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다만 고인이 생전 바라던 5·18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 마련은 끝내 이루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고인은 옛 전남도청에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을 기리는 위령제와 당시 현장사진 전시가 이뤄지기를 바랐다.

성 선생은 "저는 그분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분들의 마지막 눈빛이 제겐 유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싶다. 그게 저의 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만평장제시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일 오전 7시50분이며, 고인은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연성기자

“청소년이 직접 만든 성취가 가장 값진 결과”

김민재 하당청소년문화센터장 퇴임

“청소년지도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행정,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어나겠습니다.”

목포지역 청소년들의 울타리이자 성장 발판 역할을 해온 김민재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장이 7년5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했다.

김 센터장은 2019년 3월 센터 개관 준비부터 운영을 총괄하며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정책 활성화에 헌신해왔다.

재임 기간 센터를 찾은 청소년과 시민은 약 40만명(39만9천955명)이다. 이 중 청소년 이용률이 73.3%를 차지할 만큼 명실상부한 지역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으로 인정됐다.

김 센터장은 단순한 수련시설 운영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능동적인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2천여일 임기...40만명 발걸음 이끌어

107개 공모사업 유치·20억 자원 확보

청소년 참여 활동 모델링 사업 선정도

최우수시설 선정 등 224건 수상·성취

“청소년과 지역사회 연결 이어갈 것”

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링 사업에 전국 6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청소년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해 목포시와 시의회,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학교 등 기관·단체와 관계를 구축하고 목포시청소년성장협의체 사무국을 맡아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재임 기간 총 107개 프로젝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재(사진 앞줄 가운데) 센터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제공〉

트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20여여원의 외부 자원을 확보해 지역 청소년 사업에 투입하는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 선정,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장관상 등 다수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재임 기간 총 224건(기관 33건, 실무자 32건, 청소년 159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김민재 센터장은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도전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만들어낸 15

9건의 성취가 가장 값진 결과”라며 “청소년을 믿고 기회를 주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하당청소년문화센터를 떠나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길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자리에서도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청소년지도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행정,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기아 밀알봉사회, 장애인 보치아대회 지원 성금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기아 Auto Land 광주 밀알봉사회가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보치아는 공을 던지거나 굴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시킨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자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다.

이번 성금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추진

하는 오방보치아대회 운영비로 지원되며,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류삼열 기아 AutoLand 광주 밀알봉사회장은 “보치아를 통해 선수들이 함께 경쟁하고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인에 비롯한 이웃들의 사회참여를 응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성기자

목포시 드림스타트, 진로탐색 ‘런웨이 스쿨’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31일 “최근 드림스타트가 한국공항공사, 희망친구 기아대체과 연계해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런웨이 스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런웨이 스쿨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와의 맞춤형 학습 멘토링을 비롯해 공항 견학, 항공박물관 체험 등 현장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아동센터 3곳의 중학생 17명이 참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참여 중학생 1인당 30만원, 대학생 멘토에게 1인당 12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원하며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박애란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경험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 진로를 진지하게 설계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 우주 기자단 ‘우주캠프’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동아사이언스와 함께 운영한 어린이 우주 기자단 ‘우주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 우주 기자단 소속 초등학교 30명과 운영진 등 총 42명은 국립광주과학관의 인공지능 특별전 ‘모두의 AI (On-AI)’와 ‘스페이스360’을 관람한 뒤, 기자단 활동의 핵심인 ‘NASA 취재 준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유지연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연구원은 “이번 캠프를 통해 어린이 우주 기자단이 NASA와 아르테미스 계획 등 우주 탐사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체험과 취재 미션을 통해 우



주에 대한 관심을 한층 넓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켄텍 석사과정 양재연씨

교육부 국비유학생 선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31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양재연(사진)씨가 교육부 국립국책교육원 주관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에 최종 선발됐다”

고 밝혔다.

켄텍 학생이 교육부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재연 학생은 올해 총 4명을 선발한 환경·에너지 분야 국비유학생으로 뽑혔다. 연간 최대 4만달러(약 5천500만원)의 학비·생활비를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양씨는 분자동역학 및 머신러닝 기반 시뮬레이션 활용을 차세대 배터리, 촉매, 이산화탄소 전환 등 에너지 소재와 연구 계획을 바탕으로 장학생에 선정됐다.

양씨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콜로라도대학교 볼더(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등 미국 유수 대학의 화학·재료공학 분야 박사 과정에 복수 합격했으며, 추가 지원을 거쳐 진학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재연씨는 “학부 과정부터 켄텍에서 이어온 에너지 분야 연구 경험과 모범형 교수님의 지도가 큰 힘이 됐다”며 “해외 박사 과정에서 에너지 소재와 시스템 분야 전문성을 쌓고 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 참여동아리 워크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미로센터에서 제2회 동동페스티벌 “두 번째 이야기” 참여동아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동구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임원진을 비롯해 음악·공연·전시·인문·취미 등 5개 분야의 참여동아리들이 함께했으며,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의 장점을 연결하며 축제의 장면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동동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생활문화동아리 여러분”이라며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축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행사 당일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동동페스티벌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는 10월25일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에는 음악·공연·전시·인문·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참여해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복기자

일임

▲경주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9월 정례회=9월 10일(목) 오후 7시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사무실(광주 북구 서암대로181, 약국 4층), 주차:H 메디컬검진센터 주차장, 연락처: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사무실(010-8857-6616)

결혼

▲곽출철(해남연호토건 대표)·고행희씨 장남 영민(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주임 연구원)군, 오미희씨 장녀 임효빈(제주대학교 공영대학사업단 주임 연구원)양=9월5일(토) 오후 1시 제주 연호텔 3층 웨딩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로로67, 010-3625-1212)
▲정교관(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감사)·박경자씨 아들 영준군, 박옥희씨 딸 정단비양=9월5일(토) 오후 5시 광주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87), (062)710-4000, 010-8603-8293.